Bigdata Analysis

#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6월 ~7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밀가루, 식품첨가물, 대만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밀가루, 식품첨가물, 대만 등

##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6. 7.24.**
대만 FDA
밀가루 첨가제
.안전성 검토

**2016. 8. 11.**
대만 제분 협회
미국 제분 용 밀
85,250톤 구입

**2016. 8. 20.**
대만 미국 네브라스카 산
농산물(밀가루)
구입 결정

핵심이슈
도출

**"대만, 밀가루 식품 첨가물 허용기준 개정 고려"**

Bigdata Analysis

#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 대만, 밀가루 식품 첨가물 허용기준 개정 고려

2016년 7월 25일, 대만 일간지 Taipei Times는 대만 식약처(FDA)가 밀가루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아조다이카본아마이드(ADA)와 과산화벤조일(BPO)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성분에 대해 허용기준을 재평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대만 식약처는 현재 밀가루 제품의 식품첨가물 기준이 20년 전에 설정되었으며, 부작용 등 안전성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면서 개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만 식약처는 현재 허용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을 아예 금지하거나,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밀가루의 표백과 성숙을 촉진시키며, 신축성 향상을 목적으로 요가 매트나 신발 밑창에 사용되는 아조다이카본아마이드(ADA)는 이미 유럽과 호주에서 금지되었다. 또한, 과산화벤조일(BPO)의 경우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와 천식,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로, 유럽과 중국에서 금지된 첨가물이다.

현재 대만의 밀가루 식품첨가물 기준에 따르면, 아조다이카본아마이드(ADA)는 1kg 당 45mg 이하, 과산화벤조일(BPO)은 1kg 당 60mg 이하 사용은 허용되고 있다. 제조업자는 위 성분들을 제품 라벨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허차오카이(許朝凱) 대만 식약처 연구원은 식품 첨가물 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에게 4~400만 대만달러의 벌금도 부과할 계획이며, 반복적인 시험 평가를 통해 현행 기준을 재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아조다이카본아마이드(ADA)와 과산화벤조일(BPO) 두 가지 성분 모두 밀가루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허용량은 각각 1kg 당 45mg, 1kg당 30mg이다. 대만의 현행 기준에 비해서는 같거나 오히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 식약처가 현행 기준을 변경할 계획인 만큼 새로운 기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일부 첨가물에 대해서는 아예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밀가루 제품 제조업체들은 식품첨가물 검출양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만 식약처의 발표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